

42 02 22

323046202

$$\begin{array}{r} 1499 \\ 02 \end{array}$$

1998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V자형의 상향곡선을 그려나가는 논리로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호머스 말서스의 '인구
 론'으로 치치하고 있다. 1968년 출판된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인 폴 에릭의 '인구론란'
 에서는 대생물 권요이들로 그려내서 지구상에서 뚝뚝 떨어져갈 것으로 예언한 바 있다.
 그 후 인제이부터 인제 어느새 전문가들이 경제는 갈라져서 지구적인 인구증가의 속도가
 급격으로 감소하여 세계는 인제히 고령화로 진입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30여
 년 전만 해도 미래는 어둠이들로 채워질 것으로 예언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고령화 때문에 밝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30년 앞을 미리 보지 못했다.

연령층별이 아니라 당시 개국에는 65세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인구의 2~3%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고령자의 고령률은 14%에 도달하고 있다.
2030년에는 25%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지난 10년 이상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4년에 65세이상 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
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 하였으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2018년에 고령사회
(14.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가 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동하는데 각각 115년과 4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15년이 넘는 고령화 속도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996013대 예산부터 인구정책이 인구의 생애를 위해 하라는 것으로 바뀌어 경제생활의 양에 몰인으로 부각되면서 가족계획사업을 어느정도에서 볼리러 점점 추진한 결과 2002년 1.1명 2003년 1.1명으로 세계적으로 인구계획사업이 가장 성공한 나라로 인정받게 되었다. 2002년 예산에서 1992년 계획과 세계리조치에 따른 36상회의 예산조치 이래 인구증가 문제는 빈곤을 줄이고 교육에 힘쓰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

아 우리들의 배를 단련시켜주는 값진 경험을 갖도록 빛을 내면서 심중한 물결로
우리의 생강 같은 마음을 더욱더 단련시켜주는 빛을 내면서 우리의 경험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 주라.

이름 대를 물면 '남이 잠겨주라'고 시대가 엇그레 갈은데 지금 황하라는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를 두고 대미행 장구에 다섯째
정부가 내놓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데다 '삼부위원회'
조직을 기구화한 한가.

2로 2점씩 밖에 나왔는데 중년 남성인구 (15~64세) 8.6%이 11%의 노인들, 21과 14로 7인 2020년에는 2.8%이 11%의 노인을 부양할것은 3인구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생로환생등.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문제와 사회제도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없고
대부분적으로 모든 문제를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나타나며 지배이념과 정책을 형성하고 있다.

2. 양쪽의 제약을 해방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다.

빛나간 예측

박 영 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1798년 토머스 맬서스가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로 늘어난다는 논리를 펼치며 인구폭등으로 인한 대재앙을 경고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1968년 출판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폴 에릭의 '인구폭탄'에서는 세상이 젊은이들로 넘쳐나서 지구상에서 뚝뚝 떨어질 것으로 예언한 바 있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SSD)에서도 인구증가 문제가 하나의 중요 논제로 토론되던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부터 인구증가문제가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를 내세우며 가족계획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02년 1.17명과 2003년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족계획사업이 가장 성공한 나라로 칭송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구적인 인구증가의 속도가 극적으로 감속하면서 세계는 일제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30여 년 전만 해도 미래세계는 어린이들로 채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고령자들이 지구를 메우게 될 것이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날 당시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세계 인구의 2~3%에 불과했으나 현재 선진국의 고령화는 14%에 도달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5%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지난 10월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2019년에는 고령 사회(14.4%),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20%)가 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동하는 데 각각 115년과 40년이 걸린데 비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19년과 7년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추세는 급격한 출산을 감소와 맞물리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 대책마련이 화급한 상황이다.

그렇 수밖에 없는 것이 올해 생산가능인구(15~64세) 8.6명이 1명의 노인을, 그리고 14년 후인 2020년에는 2.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청와대가 대통령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두고 대비책 강구에 나섰으며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저출산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등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다.

인구감축과 생존율 상승의 문제는, 세계가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⁹¹²⁷것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일로써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유엔에서도 그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느냐이다. 그리고 정책결정의 근거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